3월 1일(월) / 창 1-4

▶ 내용요약 :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2장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다. 이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3장에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결국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4장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인류의 죄는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 질문 :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1장)
▶ 생각하기 : 사탄은 결코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사탄은 지혜롭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거짓말을 잘 분별하도록 하자.

3월 2일(화) / 창 5-8

▶ 내용요약 :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에녹에 대한 묘사가 흥미로운데,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장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계획과,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다. 7장에는 대홍수 사건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 뿐 아니라 각종 짐승들을 위한 자리도 있었는데, 정결한 것은 암수 일곱 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두 쌍씩 데리고 와서 그 종을 보존하였다. 8장에서 노아는 약 370일 동안 머물러 있던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질문 :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6장)
▶ 생각하기 :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

3월 3일(수) / 창 9-12

▶ 내용요약 :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인류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11장에는 성읍과 탑을 쌓아올리는 인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음으로써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대홍수 심판을 대비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1-11장의 원역사가 막을 내리고 12장부터는 족장사가 시작된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다. 이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
▶ 질문 :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은?(9장)
▶ 생각하기 :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벽돌을 구우며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자. 또한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3월 4일(목) / 창 13-16

▶ 내용요약 :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지게 된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소돔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 14장에서 롯은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온 아브람에 의해 구출된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맞이하며 그를 축복하였다.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자손과 땅에 대하여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사백 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편 16장에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고자 했다. 계획대로 하갈은 아브람을 통해 임신을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사래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결국 하갈은 사래를 피해 도망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하갈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 질문 :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축복한 사람은?(14장)
▶ 생각하기 :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자.

3월 5일(금) / 창 17-20

▶ 내용요약 :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래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여왕' 또는 '여주인'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정성껏 대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아들을 약속하신다. 한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중재자로 나서지만,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실패하고 만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롯과 그의 딸들은 심판에서 건져주셨다. 한편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데려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셨다.
▶ 질문 :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17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써,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새 사람의 삶을 누리자.

3월 6일(토) / 창 21-24

▶ 내용요약 :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웃음'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한다. 그런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다음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아내를 장사지내기 위해 막벨라 밭을 은 사백 세겔에 산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 이삭의 신붓감을 찾아오게 한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리브가라를 데려오고, 이삭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 질문 :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21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매(갈 4:4)'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3월 7일(일) / 창 25-28

▶ 내용요약 : 창세기 25장에서는 백칠십오 세가 된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던 이삭과 리브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들은 쌍둥이 아들을 낳은 후 첫째의 이름을 에서, 둘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한편 26장에는 흉년으로 인해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된 이삭과 그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 사이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우물들을 막아버린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 얼마 후 그런 이삭에게 아비멜렉 왕이 먼저 찾아와 화친을 요청했고, 이에 둘은 서로 언약을 맺는다. 한편 27장에서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눈이 어두운 자신의 남편을 속여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했다. 에서는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려 했으나 28장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다. 도망하던 중 야곱은 벧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다.
▶ 질문 :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은?(28장)
▶ 생각하기 : 야곱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복을 가로챘다. 사실 야곱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23)"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조급한 순간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루어야 하는 목적만큼이나 수단과 과정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